

<萬憤歌>에 드러난 怨恨의 양상

柳年錫*

<차례>

- I. 서론
- II. 作者의 이해
- III. 作品의 분석
- IV. 작품에 서린 作者의 意圖
- V. 결론

<국문초록>

현존 유배가사는 10여 편으로, 이들은 대부분 정적에 대한 원망과 군주의 은총을 기대한 연군가로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안조환의 <만언사>를 들 수 있다. 이는 작자가 추자도 귀양가서 힘든 유배생활을 읊은 것인데, 이 사언은 궁중에까지 알려짐으로 곧 해배되었다는 일화가 있다. 이처럼 유배가사는 왕권에 순응하여 왕의 은총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담아야 한다는데 주목되었다.

그러나 조위의 <만분가>는 세상에 없는 先王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비통해 하며 읊은 것으로 일반 유배가사와 차원이 다를 내용이다. <만분가>라는 제목에서부터 만가지 원한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작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하겠고, 작품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으며, 아울러 작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고찰하고자 하였다.

작자 조위는 詩文에 남다른 재능을 지녔으며, 그 결과 성종의 총애를 입은 바가 자못 융숭하였다. 28세에는 왕명으로 「두시언해」를 간행하였고, 40세에는 「점필재문집」을 간행하였으며, 42세에는 「세종실록」을 편찬하였다. 이처럼 성종의 편찬사업에 온 정열을 바쳤으며, 특히 성종과 연산조에 걸쳐 제일의 文名을 얻음으로 詩老란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연산조에 史草와 관련하여 그에게 비운이 싹트게 된다. 훈구파 유자광, 이극돈의 모함으로 야기된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사람 40여명이 제거되는데, 여기에 조위도 억울하게 포함되어 5년여 유배생활로 철천의 원한을 삭이며, 끝없는 인생의 벼랑을 실감하면서 끝내는 중병으로 최후를 맞았다. 또 1년후 갑자사화 때 부관참시를 당한다.

작품의 분석은 전체를 서사, 본사, 결사 등으로 나누고 본사를 7단락으로 나누어 고찰한 바, 본사를 7단락으로 나눔에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기엔 어려움이 많았다. 시간이나 장소, 또는 인물들의 등장도 없이 가슴에 맺힌 원한만이 연속될 뿐이기 때문에 이들을 자의적으로 나눌 수 밖에 없었다. 작품을 1)창작동기, 2)충정구가, 3)영어비탄, 4)양천탄식, 5)원분토로, 6)함분축원, 7)애소회의, 8)성종회복, 9)만분체념 등 9단락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작품에 나타난 작자의 의도는 작품 전체에 다채롭게 제시되는데, 소재, 비유물, 원분을 직소한 구절 등을 통하여 밝혀진다. 소재에는 매난국죽, 꿈, 눈물, 죽음, 이별 등이고, 비유

* 순천대학교 명예교수

물들은 두건, 백구, 학, 외기러기, 우는새 등 조류와 산, 물, 돌, 달, 비, 구름, 서리, 소나무 등 자연물을 통하여 작자의 통한이 토로되었다. 그리고 13구에 달하는 많은 곳에서 발분의 정을 노래함으로 <만분가>의 작가의식을 충신연군지사라는 입장에서 원분가라는 시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핵심어 : 조위, 사림파, 성종, 유배가사, 연군가, 원분가

I. 서론

曹偉(1454-1503)의 <만분가>는 작자가 士大夫인 것과 士禍나 黨爭의 배경에서 形成되고, 그리고 流配라는 상황에서 창작되었다는 데 관심을 집중하여 戀君之詞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작품의 情況으로 보아 단순히 戀君型詩歌라고 하기에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전 유배가사는 10여 편, 이들 대부분은 政敵에 대한 원망과 군주의 은총을 기대한 연군가로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안조환의 <만언사>를 들 수 있다. 이는 작자가 추자도에서 힘든 귀양살이를 읊은 것으로, 이 사언을 들은 궁녀들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 후 곧 소환되었다는 일화가 있다. 그러나 조위의 <만분가>는 세상에 없는 先王을 그리워 하면서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비통해 하는 것으로 일반 유배가사와 다르다. 당시의 지배체제는 절대 군주시대로 모든 권력은 왕에게 있고, 왕권에 순응할 때만이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유배가사의 내용도 왕권에 순응함으로 왕의 은총을 회복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데 주목하였다. 그래서 유배문학의 기본구조를 화자의 억울함 토로, 임금에 대한 충성 강조, 자신에 대한 선처 호소 등으로 보고 있는데, <만분가>는 그런 구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분가>는 제목에서 시적화자의 정서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만가지 원한을 쏟아내는 노래라 하여, 현실에 대한 ‘發憤의 情’을 표출하는 流配歌辭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작품의 구조분석과, 작자의 생애, 사회적 배경, 작품내용 등을 깊이 있게 고찰하여, 유배현실에 대한 ‘萬憤’의 정서가 어떻게 함유되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런 내용에 대하여 심층적 고찰을 통하여 내용연구의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기에는, 먼저 창작배경에서는 작자의 삶이 어떠했으며, 시대적 환경은 어떻게 전개되었고, 특히 절박한 유배자의 입장에 서게된 직접적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그리고 작품구조는 기존의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좀 더 합리적인 작품의 짜임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작가의 의식세계를 밝히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여기서는 기왕의 충신연군적 입장에서 보다는 성종시대에 양성된 많은 사림파 선비들의 수난과 몰락을 예감하고 체념과 비탄에 빠진 작자의 발분적 심정은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II. 作者의 이해

<만분가>의 창작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작품을 지을 수 있는 개인적 소양과 그 시대적 여건을 살펴보는 것이 온당하리라 보아 매계의 文名과 戊午士禍, 그리고 配所生活를 고찰하고자 한다.

曹偉(1454- 1503)는 창녕이 본관이며, 호는 梅溪이고, 시호는 文莊이다. 그의 문명은 탁월하여 어려서부터 詩文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5세 때 庶弟인 適庵 曹伸과 함께 학문의 길에 나서게 되었으며, 7세에 이미 詩에 능하다는 칭찬을 받을 만큼 일찍 才氣를 드러냈던 것이다. 10세에는 매형 金宗直에게 나아가 학문을 닦고, 11세에는 영의정을 지낸 종숙 錫門의 家塾에서 『소학』을 공부하였다.

그리고 17세된 1470년(성종원년)에 강릉에서 독서하다가 서울로 올라온 매계는 19세(성종 3년) 되던 해 처음으로 과거에 응시하여 生員, 進士, 初試 등에 모두 장원을 하여 남들을 놀라게 했다. 다음 해에는 司馬覆試에, 그리고 21세 때는 式年試 丙科로 급제하였으며, 23세(성종7년)에는 賜暇讀書文臣이 되고, 다음해 영안도 경차관에 올랐다. 이후에도 수차에 걸쳐 詩製에 장원함으로 성종의 총애를 받고, 경연에 참여하게 되었다.

매계는 그 風儀가 빼어났으며, 가슴에 품은 생각이 넓어서 선비의 모범으로 一世에 이름이 높았다는 것은 史錄으로 알려진 바이며,²⁾ 특히 文章으로 성종의 총애를 입은 바가 자못 융숭하였다. 성종이 일찍이 홍문관·예문관의 堂下官과 主書들을 仁政殿에 불러모아 <東郊觀獵排律三十韻>과 <賀親行釋奠頌>을 짓게 하였는데, 그 때 매계의 頌이 으뜸이었고, 또 金訥과 함께 <仁政殿早朝律詩>를 짓게 하여 모두 合格됨으로 駿馬 1필씩을 받은 적도 있었다³⁾고 한다.

그리고 庶弟 曹伸의 기록은 더욱 상세히 적고 있는데, 매계가 31세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 爲親乞郡하니, 부득이 함양현감으로 제수하면서 글을 내려 말하기를 ‘그대가 애초 文章으로 출사했으니 만큼 나의 거처 가까이 두어야 할 것이로되 가정적인 사정을 보아서 부득이 외직에 보내니 개탄할 따름이라’ 하면서 그곳 감사에게 명하여 매계의 老親에게 表裏와 鹿皮를 선물로 하사하게 하였다. 이후 매계는 부친상을 치를 때까지 8년 가까이 그곳에 머물렀다. 이어서 도승지, 호조참판, 충청도 전라도감사 등을 역임하고, 대사성으로 춘추관지사가 되어 42세에 『세종실록』을 편찬하였다. 그리고 草間 權文海도 역시 매계가 문학으로써 성종의 獎遇를 크게 입었다⁴⁾고 기록하였다.

또한 매계는 28세 『杜詩諺解』의 번역과 序文을 쓴 일도 유명하지만, 그의 문명은 세상에 널리 퍼져 退溪와 高峰과 같은 이들도 매계의 추모를 위해 세운 臨淸臺의 扁額이나 敬賢堂의 記文을 흔쾌히 썼다. 뿐만 아니라 점필재 김종직은 매계를 가르치면서, 내가 태허와 강론함에 강하가 터진 것 같았으니 태허는 나의 스승이다(吾與太虛講論 若決江河 太虛眞我師也)라고 칭찬하였다. 또 虛白亭 洪貴達은 매계의 시문은 구름이 내불고 무지개를 토하는 만장의 문광(嘘雲吐虹 萬丈文光)이라 하였고, 그가 쓴 墓碑銘에도 ‘有能詩聲神氣’라고 극찬을 하였다. 尤菴 宋時烈도 매계의 문장과 도학에 대하여, ‘여사로 문장을 했으나 왕조를 빛냈고,

2) 爲人 風儀秀整 襟懷恢廓. 一世稱儒雅. 『燕山君日記』 31절 7장, 4년 무오 9월

3) 上命聚弘文館, 藝文館堂下官 及注書等于仁政殿庭, 製東郊觀獵排律 三十韻 及駕新行釋奠頌……頌則修撰曹偉居魁, 又命金訥, 曹偉, 製仁政殿, 早朝律詩. 以定高下俱中格, 各賜馬 一匹 『성종실록』 120권 4장 11년 庚子 8월.

4) 工於時文 以文章 大被成廟獎遇 - 『大東韻府群王』 5권 58장, 아세아문화사, 1975.

경술과 논사는 스스로 기와 교요와 같이 되고자 했다⁵⁾(餘事文章 黼黻王朝, 經術論思身許夔臯)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매계가 23세에 俞好仁과 함께 賜暇讀書文臣의 영예를 누리게 된 사실만으로도 시문창작에 대한 식견이 탁월했음을 알 수 있고, 매계가 뛰어난 문장으로 충애를 독차지하여 문명을 크게 얻을 것은 그의 넓은 학식과 수려한 문장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의 신진사류를 道學와 文章으로 나눌 때 전자에는 김굉필, 정여창이 있다면, 후자에는 조위, 유호인, 김일손 등을 들 수 있다.

이렇듯 매계의 시작활동은 성종과 연산조에 제일의 文名을 얻음으로 詩老란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燕山朝에 들자 史草와 관련하여 그에게 비운이 짝트게 된다. 보수적 사고를 가진 훈구파와 진보적 취향과 절의를 중시한 사림파가 격렬히 부딪치는 戊午士禍가 연산군 4년(1498)에 발발하게 된다. 이는 김종직의 제자인 史官 金駟孫이李克墩의 비행을 낱알이 史草에 담은 일로 하여 이들은 틈이 생기었으며, 柳子光도 자신이 쓴 현판을 철거소각한 김종직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들의 언동은 마침내 선비를 싫어하는 연산군의 마음과 일치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조선시대 최초의 사화다.

그 내용인즉 『성종실록』 편찬을 위해 작성한 김일손의 사초에 김종직이 쓴 <弔義帝文>이 수록된 바, 이는 세조의 왕위찬탈을 풍자한 것으로 項羽가 楚懷王을 죽인 중국의 고사를 寓意한 것이다. 여기에다 유자광은 교묘하게 句解를 더하여 연산군에게 上啓하였다. 이른바 義帝를 端宗으로 간주하여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일을 비방한 것이며, 단종을 弔喪하고 세조를 蔭譏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고발하였다. 이에 연산군은 김일손 등을 신문하고, 이 죄는 모두 김종직이 선동한 것이라 하여 그를 剖棺斬屍하고, 김일손을 비롯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귀양보내어 과면하여 사림 40여 명을 제거하니 사림파의 기세는 무참하게 꺾이고 말았다. 이런 참변은 유자광이 책정한 죄명과 형량을 그대로 수용한 연산군의 횡포로 야기된 결과다.

매계는 여기에 직접 연주된 것은 아니나, 김종직의 처남이자 門人이었고, 일찍이 성종의 편찬사업에 온 정열을 바쳤으며, 특히 성종 제일의 문장이며 충신인 그에게 『점필재문집』을 간행하라는 왕명이 내려졌다. 이때 점필재의 시문 17권을 교정하여 드리면서 <弔義帝文>을 그 머리에 두었다.⁶⁾ 이것이 뒷날 士禍를 입을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다. 유자광은 이를 빌미로 참조하여 <조의제문>을 처음에 실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 하면서 문집을 간행한 자까지 처벌하기를 주청하였다. 이에 연산은 크게 노하였으며, 賀聖節正使로 연경에 간 매계를 압록강을 건너 오거든 목베어 죽이라 하였다.⁷⁾

한편 매계 일행이 요동에 이르러 국내 정세의 긴박함을 알게 되었다. 동행한 아우 적암이 요동의 名人 鄒源潔에게 앞으로의 운세를 물으니 ‘천길 물속에서 몸을 뒤집고 나왔지만, 바위 아래서 세 밤을 지새야 할 것이다’(千層浪裏翻身出 也須巖下宿三宵)라는 2구의 시를 지어 주었다. 이를 본 매계는 ‘첫구는 禍를 면할 듯싶으나, 둘째구는 풀기가 어렵도다’고 하였다. 압록강에 당도한 일행은 官人의 기다림을 보고서 실색하여 마음 조이며 강을 건넜으나,李克均의 구원(先代王의 寵臣이라 간청하여 겨우 죽음을 모면함)으로 극형을 면하고 귀양길에 오르게 되었다. 이것으로 점쟁이가 써 준 上句의 내용을 마친 것이 되었으며, 순천 유배지에서 병사한 뒤 고향에 묻혔으나 甲子年(1504) 사화에 연루되어 부관참시의 극형을 당해 무덤 앞 바위 아래 3일간 시신을 거두지 못하였으니⁸⁾ 이는 점쟁이의 下句에 합당한 셈이 된다.

5) 조위, 『매계집』 4권, 계명문화사, 1988.

6) 成廟 命公纂集店畢之文 以弔義帝文 首錄. 『해동신명록』 4권

7) 『연려실기술』 券之六 戊午黨籍. 민족문화추진위원회편

조위가 압록강을 넘어오면 그를 處斬하라는 연산군의 명령이 내려졌다. 이때는 매계가 45세 된 7월이었다. 8월 압록강에 이르러 의금부도사를 보고 일행은 모두 두려워 떨었으나 매계는 홀로 태연하게 체포되었으며 入京하여 죄를 받고 20일에 의주 적소를 향했다.⁹⁾ 그는 이곳에서 1년 8개월(45세 9월~47세 5월)을 지내는 동안 같은 문하요 동료인 虛庵 鄭希浪(1469~?)과 함께 유배생활을 하면서 정자를 세우고 그 이름을 ‘葵亭’이라 하고 스스로 記文을 지어 붙인 바, 거기에는 임금을 그리는 마음이 다음과 같이 담겨 있다.

해바라기는 능히 햇빛을 향하여 빛을 따라 기울곤 하니 이를 충성이라 일러도 좋을 것이요, 해바라기는 능히 발을 보호하니 이를 슬기라 일러도 좋을 것이다. 대체 충성과 슬기란 사람의 신하된 절개이니 충성으로서 윗사람을 섬기되 자기의 정성을 다하고 슬기로서 물건을 변별하되 시비에 의혹이 없는 것이니, 이것이 곧 군자의 어려워하는 바이요, 나의 일찍부터 연모하던 일이라. …… 이제 내 비록 귀양살이를 한다 하더라도 자는 것이나 먹는 것이 임금의 은혜가 아님이 없으니, 낮잠과 밥먹는 나머지에 심휴문과 사마군실의 시를 읊을 때 마다 해를 향하여 마음을 스스로 그치지 못하였으니 해바라기로 내 정자의 이름을 지은 것에 아무런 이론이 없을 것인저.¹⁰⁾

위의 내용은 매계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절박한 자신의 삶의 모습이 투영된 글이라고 하겠다. 1501년 김맹손의 <止止堂集序>에서도 의주의 적소생활을 엿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바야흐로 남의 문자를 엮어 당시에 죄를 얻어 유배온 이래로, 처와 자식들이 내가 문서를 보거나 연필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면 꾸짖으면서 불살라 버렸다. 나 또한 뜨거운 국물에 입을 데어 놀란 나머지 찬나물도 불면서 먹듯 하며 붓을 찾지 않은 지가 몇 년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또 스스로 생각하기를 ‘화복의 순환이 떼뻗하기 어려움은 하늘에 달려 있기에 피하기 어려우니 어찌 구구하게 능히 두루 비방할 바를 생각하고, 한번 목이 메인 사람이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그런즉 선원의 시는 서술하여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¹¹⁾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비록 사화로 유배된 충격이 완화되지는 않았으나 문인으로서 생활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던 듯하다. 그런데 47세(1500) 여름에 하늘이 맑은데도 뇌성이 있어 이상히 여겼더니, 조정에서 配所를 옮기라는 명령이 떨어지니 5월에 순천으로 옮겨 西門 밖에 우거하였으며, 그때 寒喧堂 金宏弼도 회천에서 이곳으로 移配되어 오니, 이들은 서로가 점필재김종직의 문하생으로 도의를 강론하며 지냈다.¹²⁾

8) 이가원, 「<만분가>연구」, 『동방학지』 6집, 연세대, 157쪽.

9) 子光以先生纂集畢時文首錄弔義帝文頗有義譏於燕山時先生朝天未還燕山命越江時即處斬之 八月十五日先生到遼東始聞之二十六日到鴨綠江望見金吾郎來候一行皆懼先生 獨顏色不變及渡更拿令命九月九日入京逮獄十七日決罪二十日發謫義州. 조위, 전게서, 81~82쪽.

10) 曹偉, 『梅溪集』 권5, 「葵亭記」 葵能向日 隨陽而傾 謂之忠可也 葵 能衛足 謂之智可也 夫忠與地人臣之節 忠以事上 盡己之誠 智以辨物 不惑是非 此君子之所難 而余之夙昔所慕者也 …… 今汝雖謫居一眠一食 莫非主恩 千睡攤飯之餘 咏休文君實之詩 向日之心 自不能已基 則以葵名吾亭 豈無說乎

11) 曹偉, 전게서, 권5, 「止止堂集序」, 282~283쪽. 余方以編人文字得罪 於是 竄謫以來 妻孥見余 看文書親筆硯 即詆罵以焚棄之 余亦懲羹吹虀 不探筆者數年 即又自計曰 倚伏難常者 在天以難道 豈區區思慮所能周防 以一噎之人終身廢食可乎 然即 善源之詩 不可不鉅以傳之也.

12) 조위, 전게서, 83쪽.

매계는 의주와 순천에서 5년여의 긴 세월의 유배생활을 살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翰墨을 폐하지 않았으므로 文思가 前日에 비하여 倍進되었다¹³⁾고 하며, 오히려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많은 저술을 하였으며, 일찍이 『梅溪叢話』를 쓰다가 끝내지 못하였다¹⁴⁾고 한다. <만분가>의 내용 중 ‘湖南 어니 고디’라는 구절로 보아서도 창작 장소는 순천임이 분명하거니와 매계는 이 <만분가>를 늘 부르되, 입으로 통소소리를 내면서 두 발로 腰鼓를 괴이는 한편, 손으로는 玄琴을 뜯되 曲節이 서로 맞아 그릇됨이 없게 하여 스스로 기뻐하였다¹⁵⁾고 安鼎福은 기록하고 있다.

매계가 49세(연산8, 1502)에 쓴 <임청대기>¹⁶⁾를 보면 순천부 서쪽에 玉川이란 시내가 있는데 水石이 맑고 고우며 老巨樹가 있어 해를 가려주고 물가는 평평해 수십 명이 앉을 수 있으며, 그윽하고 행땡그렇게 맑고 상쾌하다. 비록 무더운 여름일지라도 더위를 피할 수 있었다. 이 곳은 집과 가까워 주민들과 어울려 놀기 좋은 곳으로 돌을 쌓아 대를 만들어 臨淸臺라 하고 記文을 지어 붙이고 늘 한훤당 김굉필과 함께 도학을 강론하였다. 지금도 이황 친필의 임청대가 유형문화재로 보존되어 있다. 이때 함께한 사람으로는 주인 沈從柳, 두 노인 梁禹平·韓麟壽, 校官인 張自綱 등이다. 이들과 더불어 眞率會를 조직하고 돌려가며 밥·산나물·술향아리를 진설하고 고기를 잡아 국을 끓이고 회를 쳐서 제공하였다. 흥에 겨워 바둑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땅거미가 내려서야 흠어지곤 하였다. 그리고 때로는 지팡이를 짚고 달빛을 밟으며 돌아왔다. 昇平에 살면서 이곳의 산천과 풍토와 날씨를 몇몇 분과 더불어 조용히 향유하였다. 더러는 물을 움켜 세면을 하고 돌에 기대어 발을 적시며 온종일 일없이 노닐며 늙음을 몰랐으니, 시를 읊고 글을 지으며 協比聲律에 이를 필요가 없었다. 이런 좋은 산수가 있으나 圖誌에 名勝地로 기록되지 못함을 한탄하였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삶의 자세를 바꾼 것은 매계가 이 곳을 臨淸이라 한 데서 찾을 수가 있다. 도연명은 <귀거래사>에서, “동쪽 언덕에 올라 노래를 부르고 淸流에 臨하여 시를 짓는다. 얼마동안 自然의 造化를 따르다가 마침내 돌아가면 되는 것이니 天命을 즐기면 그만이었지 다시 무엇을 의심하랴 <登東臯以舒嘯 臨淸流而賦詩 聊乘化而歸盡 樂夫天命復奚疑>”라고 했는데, 이는 인생을 자연의 推移에 맡겨 살려는 자연복귀의 인생관과 安心立命의 경지를 노래한 것이다. 매계도 이 시를 읽다가 임청대를 생각하게 된 것이고 天命을 따르려는 심정으로 필경 적소에서 짧은 인생을 다하고자 하는 뜻이 엿보인다.

이 작품의 창작동기는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표백한 것이다. 여기서 天上白玉京은 서울이고 玉皇上帝는 성종 임금이라고 해 놓고서 자신의 유배동기가 자신의 허물과는 무관하고 부당한 것임을 故事를 인용하여 설득력 있게 표현하였다. 序詞에서 작자는 흥중에 쌓인 말씀을 실컷 호소하고 싶다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자신의 무죄함을 군주께 哀訴하거나 결백함을 내세워 자신이 처한 신세타령을 애절하게 그리고 있는데, 작품에서 ‘縲紲非罪’라고 한 표현은 『논어』의 ‘雖在縲紲之中非其罪也’란 구절에서 인용된 것으로 ‘나는 죄인처럼 묶였으나 나는 죄가 없다’라는 의미를 대변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매계는 명나라 황제의 생일 축하 사절의 책임자로 임무를 수행하고 압록강을 건너자 戊午士禍에 연루되어 바로 체포 투옥되니, 어디에 그의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할 수도 없었으며, 이미 그가 성장한 바탕으로 했던 동료들도 참변을 함께 당했으니 기가 막히고 하늘

13) 其在謫也 亦不廢翰墨 文思之進 位於平昔. 『연산군일기』 31권 8장 4년 戊午 9월.

14) 雖以事廢錮 猶手不釋卷 著述頗多 嘗草梅溪叢話十餘事 末成藁以卒 『謏聞瑣錄』

15) 梅溪常蹙口作蕭聲 兩足舉腰鼓 手彈玄琴 曲節相應不差 以爲樂 『雜同散異』 제44책.

16) 순천대학 남도문화연구소, 『昇平誌』, 정문사, 1988, 33쪽.

이 무너질 일이었다. 의주에 杖流되어 그곳에서 1년 8개월 지내면서 葵亭을 짓고 주변에 해바라기를 심어 충성과 절개를 다졌다. 또 순천으로 移配되어 3년 6개월 유배생활의 고행과 울분으로 중병을 앓게 되니, 50세 되던 동지달에 졸하였다. 다음해(연산군10년) 甲子土禍가 일어나자 尹氏廢妃敎書를 작성한 것이 죄가 되어 부관참시를 당했다. 成宗이 中宮 尹氏를 廢할 때 弘文館員에 명하여 敎書를 짓게 했으나 모두 명령을 받들지 않아하므로 매계에 명하니 곧 지어 바쳤다. 이에 폐출의 교서를 지은 매계로서 부관참시는 당연지사였고, 그를 諺文獄事에 관련시켜 그의 친족들을 鞫問하였다.¹⁷⁾

매계는 인생의 결실기를 앞두고 일어난 황당한 사건으로 답답한 5여년의 유배의 삶을 살면서 철천의 원한을 삭이며 끝없는 인생의 벼랑을 느끼며 병으로 신음하다 최후를 맞았다. 그래서 <만분가>의 서사에서는 임에 대한 그리움의 연군적 정서가 가미되어 나타나다가 본사에서는 임에 대한 원망 및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탄에 대한 발분적 정서가 교합되면서 연약한 사립과의 한 사람으로 막강한 훈구파의 권력 앞에서 느낀 막막한 좌절감이 분노와 체념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심정은 <만분가>의 끝부분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매계는 유배지 순천에서 생애를 마쳤고, 그곳에서 한 많은 생애를 살면서 <만분가>를 통하여 원분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자신의 억울하고 답답함을 君主를 그리는 심정으로, 혹은 遺言狀을 쓰는 마음으로 <만분가>를 썼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매계는 김종직 문하에서 文名을 얻었으며, 뛰어난 문재로 인하여 성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으나, 무오사화가 일어나니 훈구세력과 사립파간의 알력으로 결국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 문제가 되었고, 그도 이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 또한 유배지에서 겪은 자신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군주를 그리는 마음으로 <만분가>에 담았다. 결국 자신의 결백도 호소하지 못하고 戊午·甲子 兩土禍의 불씨로 매계의 존재는 미미하게 되었다. 더구나 후손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과 그 많은 저술마저도 산일되니 <만분가>의 내용대로라면 ‘千層浪 혼가온대 百尺竿의 올라더니 / 無端호 兩角風이 宦海中의 나리나니/ 億萬丈 소회 빠져 하늘짜흠 모를노다’의 처지가 되고 말았다.

III. 作品의 분석

<만분가>는 124행 248구이고, 3·4·3·4의 4음보격인 정형시이다. 우선 작품 전체를 서사, 본사, 결사 등으로 나누고, 본사를 7단락으로 나누어 각 단락의 원문¹⁸⁾과 전문해석을 제시하였다. 7단락으로 나눔에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계절이나 장소, 또는 인물의 제시도 없이 가슴에 쌓인 원한만이 연속될 뿐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원한의 양상에 따라 자의적으로 나눌 수 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다음은 序詞로 1행에서 10행(天上 白玉京~쓸커시 스로리라)까지이다.

天上(천상) 白屋京(백옥경) 十二樓(십이루) 어디매오

17) 刷曹偉族親 鞫匿名書事 <「연산군일기」 권60 장9, 11년 11월>

18) 다음에 계속하여 제시되는 原文은 이상보 편저인 한국가사선집(집문당)에서 인용함.

五色雲(오색운) 깃픈 곳의	紫淸殿(자청전)이 그려시니
天門(천문) 九萬里(구만리)를	꿈이라도 갈동말동
츠라리 식여자여	億萬(억만)번 變化(변화)하여
南山(남산) 늦춘 봄의	杜鵑(두견)의 녀시 되어
梨花(이화) 가디 우회	밤낮줄 못 올거든
三清洞裡(삼청동리)의	점은 한닐 구름 되어
보람의 흘리 느라	紫微宮(자미궁)의 느라 올라
玉皇(옥황) 香案前(향안전)	咫尺(지척)의 나아 안자
胸中(흉중)의 싸힌 말슴	쏟커시 스로리라

이는 서정적자아는 님(成宗)이 계신 궁궐이 구름에 가려 꿈에도 갈 수 없는 정황을 제시하고, 죽어서 두견이나 구름이라도 되어 님의 곁에 가서 흉중에 쌓인 말을 하고 싶다는 자신의 절실한 소망을 압축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서 옥황은 先王(성종)으로 도가적 천상세계인 신선의 집에 계시니 자신의 유배지인 지상과는 도저히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도 억만번 윤회전생을 거쳐서라도 님의 곁에 가서 만분의 정한을 실컷 사되어 해소하고 싶다는 영원불변의 사랑의 정서가 돋보이며, 서정적자아가 유배지에서 느끼는 원분지정이 압축적이면서도 극진하게 피어오르는 절실함을 느끼게 한다.

다음은 본사의 제1단락으로 11행에서 27행(어와, 내 몸이 ~ 님 그려 이러컨자)까지다.

어와, 이 내 몸이	天地間(천지간)의 느저 나니
黃河水(황하수) 물다만논	楚客(초객)의 後身(후신)인가
傷心(상심)도 ㄴ이 업고	賈太傅(가태부)의 녀시런가
한숨은 무스 일고	荊江(형강)은 故鄉(고향)이라
十年(십년)을 流落(유락)하니	
白鷗(백구)와 버디 되어	흠뻑 놀자 헛엇더니
어루는 듯 괴는 듯	님의 업슨 님을 만나
金華省(금화성) 白玉堂(백옥당)의	꿈이조차 향기롭다
五色(오색)실 니음 절너	님의 옷슬 못 헛야도
바다 ㄴ튼 님의 恩(은)을	秋毫(추호)나 갑프리라
白玉(백옥)ㄴ튼 이 내 ㅁ음	님 위하여 직회더니
長安(장안) 어제 밤의	무서리 섰거치니
日暮修竹(일모수죽)의	翠袖(취수)도 冷薄(냉박) 홀샤.
幽蘭(유란)을 것거 쥐고	님 겨신 되 바라보니
弱水(약수) ㄴ리진 되	구름 길이 머호리라
다 서근 뉘기 얼굴	첫맛도 채 몰나서
憔悴(초취)한 이 얼굴이	님 그려 이러컨자

이상은 작가가 처한 고난의 현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신을 楚客(굴원)으로 가정하고 유배지에서 오랜세월 백구와 어울려 살다보니 신선이 된듯한 꿈도 꾸게되고, 더러는 임생각도 하지만 궁중에 휘몰아치는 무서리 때문에 날씨는 겨울이고, 푸른 옷소매는 옅어 차가운데 해질녘에 임에게 보내려는 난초를 꺾어쥐고 긴 대에 의지하여 서 있는 작가의 모습은 유배지의 애환으로 자탄에 찌들린 형상이다. 유배지에서도 님의 옷을 짓고 유란을 꺾어 님에 대한 보은을 하고자 하나 지난 밤 무서리가 내려 냉기가 감도는데, 더구나 약수가 막고 구름이 험하여 님에게 갈 수 없는 안타까움에 지친 자신의 초취한 모습을 자탄하였다.

다음은 본사의 2단락으로 28행에서 46행(千層浪 헛가운데 ~ 一夜의 기도 길샤)까지다.

千層浪(천층랑) 흥가운데	百尺竿(백척간)의 올라더니
無端(무단) 흥 羊角風(영각풍)이	宦海中(환해중)의 니러나니
억만장(億萬丈) 소희 빠져	하늘 짜흔 모를노라
魯(노)나라 흐린 술희	邯鄲(한단)이 무슨 罪(죄)며
秦人(진인)이 醉(취) 흥 蠶(잔)의	越人(월인)이 무슨 닳고
城門(성문) 모딘 불의	玉石(옥석)이 흠씩 트니
뜰 압희 심은 蘭(난)이	半(반)이나 이우레라
梧桐(오동) 점은 비의	외기럭기 우리 렬 제
關山萬里(관산만리) 길이	눈의 암암 불피는 듯
靑蓮詩(청련시) 고쳐 읊고	팔도 한을 슷쳐 보니
華山(화산)의 우는 새야	離別(이별)도 괴로왜라
望夫山前(망부산전)의	夕陽(석양)이 거의로다
기도로고 ㅼ라다가	眼力(안력)이 盡(진)듯던가
落花(낙화) 말이 엮고	碧窓(벽창)이 어두브니
입 노른 샷기 새들	어이도 그리 건자
八月秋風(팔월추풍)이	뽀집을 거두으니
빈 긴의 ㅼ인 알히	水火(수화)를 못 먼토다
生離死別(생리사별)을	흥 몸의 혼자 맛다
三千丈(삼천장) 白髮(백발)이	一夜(일야)의 기도 길샤

위에서는 헤어날 수 없는 현실과 참기 힘든 유배자의 고뇌를 토로하였다.궁중에는 끝없는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억만장 늪에 빠져 하늘인지 땅인지 분간이 어렵게 되었고, 성문을 태운 모진 불에 玉石이 함께타니 저물녘 오동잎에는 비가 내리고 외기럭기 홀로 울며 날아가는데, 자신을 화산의 새에 비유하여 태풍으로 生離別死하니, 백발이 하루 밤에 삼천장이나 길었다고 하여 유배지에서 가족들과 이별의 슬픔을 술희한 내용이다.

다음은 본사 제3단락으로 47행(風波(풍파)의 현 비 타고 ~ 눈 위 흥여 적시논고)까지다.

風波(풍파)의 현 비 타고	흠씩 노던 저뉴덜아
江天(강천) 지는 희의	舟楫(주집)이나 無恙(무恙)흥가
밀거니 허거니	灩澦堆(염여퇴)를 겨요 디나
萬里鵬程(만리봉정)을	멀니 곶 견주더니
ㅼ람의 다브치여	黑龍江(흑룡강)의 썩러진 듯
天地(천지) ㅼ이 엮고	魚雁(어안)이 無情(무정)흥니
玉(옥) ㅼ튼 面目(면목)을	그리다가 말년지고
梅花(매화)나 보내고져	驛路(역로)를 ㅼ라보니
玉樨明月(옥량명월)을	너 보던 ㅼ비친 듯
陽春(양춘)을 언제 불고	눈비를 혼자 마자
碧海(벽해) 너븐 ㅼ의	녁시조차 훗터지니
내의 긴 소매를	눈 위 흥여 적시논고

위에서는 土禍에 연루된 동료들의 불행을 슬퍼하고 멀고 먼 使行갔다 돌아오던 길에 갑자기 풍파를 만나 차거운 북해에 떨어진 신세로 님의 얼굴을 그리며 홀로 눈비를 맞으며 ㅼ을 잃어 하염없이 비통해 하는 모습이다. 옥같은 님의 얼굴 그리다가 매화를 보내려 하나 눈비를 홀로 맞아 ㅼ도 따라 나가니 흐르는 눈물이 옷소매를 적신다고 이별의 悲嘆을 술희하였다.

다음은 본사의 제4단락으로 59행에서 74행(太上 칠위분이 ~ 하늘을 원망홀가)까지다.

太上(태상) 칠위분이	玉眞君子(옥진군자) 命(명)이시니
天上(천상) 南樓(남루)의	笙笛(생적)을 울니시며
地下(지하) 北風(북풍)의	死命(사명)을 벗기실가
죽기도 命(명)이요	살기도 하느리니
陳蔡之厄(진채지역)을	聖人(성인)도 못 면하며
縲紲非罪(유설비죄)를	君子(군자)인들 어니하니
五月飛霜(오월비상)이	눈물로 어리는 듯
三年大旱(삼년대한)도	冤氣(원기)로 니킴도다
楚囚南冠(초수남관)이	古今(고금)의 혼돌이며
白髮黃裳(백발황상)의	서론 일도 하고 만타
乾坤(건곤)이 病(병)이 드리	混沌(혼돈)이 죽근 後(후)의
하늘이 沈吟(침음)홀 듯	貫索星(관색성)이 비취는 듯
고정으국(孤情依國)의	冤憤(원분)만 싸헛시니
츄라리 賭馬(할마)ㄴ치	눈 굶고 지내고저
蒼蒼漠漠(창창막막)하야	못 미들슨 造化(조화)일다
이러나 저러나	하늘을 원망홀가

위에서는 서정적 자아가 자신의 처지에서 느끼는 원분과 비통함을 노래하였다. 장황한 한문 고사를 통하여 세계에 대한 원망을 거침없이 토로하고 있어 만분가라는 제목에 걸맞은 발분적 정서가 짙게 나타난 단락이다. 고금에 성현들도 억울한 일을 당했듯이 세상에 원분이 가득하여 천지조화를 믿을 수 없음을 원망하였다.

다음은 본사 제5단락으로 75행에서 87행(盜跖도 성히 놀고 ~ 전혀 아니 슬피시니)까지다.

盜跖(도척)도 성히 놀고	伯夷(백이)도 餓死(아사)하니
東陵(동릉)이 늙은 작가	首陽(수양)이 늙은 작가
南華(남화) 삼십편(삼십편)의	議論(의논)도 하도 할사
南柯(남가)의 디난 꿈을	싱각거든 슬므어라
故國松楸(고국송추)를	꿈의 가 먼저 보고
仙人(선인) 丘墓(구묘)를	썩 後(후)의 싱각하니
九回肝腸(구회간장)이	굽의굽의 그쳐세라
瘴海陰雲(장해음운)의	白晝(백주)의 훗터디니
湖南(호남) 어니 고디	鬼域(귀역)의 淵藪(연수)런디
魑魅魍魎(이매망량)이	썰커디 저즌 ㄴ의
白玉(백옥)은 므스 일로	靑蠅(청승)의 깃시 된고
北風(북풍)의 혼자 서서	ㄴ 업시 우는 쫓을
하를 ㄴ튼 우리 님이	전혀 아니 슬피시니

위에서는 도척이 잘 되고 성인이 못되는 세상이니 천지조화를 믿을 수가 없음을 원망하고 先王이나 先祖들의 영화가 南柯一夢처럼 덧없게 느껴지고, 질병과 귀신 많은 유배지에 버려진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슬피하는 심회를 장황히 토로하였다. 특히 님(백옥은 연산군)이 쉬파리들의 깃이 되면서 북풍에 홀로 우는 자신을 살피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서 간신들을 쉬파리에 비유하면서 왕권을 포함한 세계 질서 자체에 대한 원분지정을 노골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다음은 본사의 제6단락으로 88행에서101행(木蘭秋菊에 ~ 玉皇上帝 처분일다)까지다.

木蘭秋菊(목란추국)에	香氣(향기)로운 타시런가
婕妤(첩여) 昭君(소군)이	薄命(박명)흔 몸이런가
君恩(군은)이 물이 되어	홀너가도 자취 업고
玉顏(옥안)이 꽃이로되	눈물 ㄴ려 못볼로다
이 몸이 녹가저도	玉皇上帝(옥황상제) 處分(처분)이요
이 몸이 식여저도	玉皇上帝(옥황상제) 處分(처분)이라
노가디고 식여저도	魂魄(혼백)조차 훗터지고
空山(공산) 髑髏(촉루)ㄴ치	님자 업시 구니다가
崑崙山(곤륜산) 第一峯(제일봉)의	萬丈松(만장송)이 되어 이서
브람비 썩린 소리	님의 귀에 들니기나
輪回(운회) 萬劫(만겁)흔여	金剛山(금강산) 鶴(학)이 되어
一萬(일만) 二千峯(이천봉)의	ㅁ음궂 소사 올라
ㄴ을 둘 볼근 밤의	두어 소리 슬피 우러
님의 귀의 들니기도	玉皇上帝(옥황상제) 處分(처분)일다

위에서는 님(성종)에 대한 사랑을 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와 체념이 함께 하고 있다. 목련 국화의 향기 때문인지 군은과 옥안을 볼 수가 없고, 결국에는 이 몸이 죽어 공산에 해골로 구르다가 곤륜산 만장송이 되고, 금강산 학이 되어 가을 달 밝은 밤에 슬피우나 옥황상제가 들어 줄지 회의가 겹치고, 들어주지 않아 박명한 몸이 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의 심사를 읊었다.

다음은 본사의 제7단락으로 102행에서 120행(흔이 썩희 되고 ~ 네 아니 아뉘더냐)까지다.

흔(恨)이 썩희 되고	눈물로 가디 삼아
님의 집 창 밧기	외나모 梅花(매화) 되어
雪中(설중)의 혼자 피여	枕邊(침변)의 이위논 듯
月中疎影(월중소영)이	님의 옷의 빗취어든
어엿븐 이 얼굴을	네로다 반기실가
東風(동풍)이 有情(유정)흔여	暗香(암향)을 불러 올려
高潔(고결)흔 이 내 싱계	竹林(죽림)의나 부치고저
빈 낙대 밧기 들고	빈 비를 혼자 띄워
白溝(백구) 건네 저어	乾德宮(건덕궁)의 가고지고
그러도 흔 ㅁ음은	魏闕(위궐)의 달너 이서
넌 무든 누역 속의	님 향흔 꿈을 껴여
一片(일편) 長安(장안)을	日下(일하)의 브라보고
외오 굿겨 올히 굿겨	이 몸의 타실넌가
이 몸이 전혀 몰라	
天道(천도) 漠漠(막막)흔니	물을 길이 전혀 업다
伏羲氏(복희씨) 六十四卦(육십사괘)	天地萬物(천지만물) 상긴 뜻을
周公(주공)을 꿈의 비와	즈시이 못줍고저
하늘이 놓고 놓하	말 업시 놓흔 뜻을
구름 우회 ㄴ는 새야	네 아니 아뉘더냐

위에서는 님(성종)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회의와 번민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선왕의 은총으로 살아나고픈 반복된 애소를 듣는 것 같아 서정적자아의 모습이

애처롭고 눈물겹다. 한과 눈물의 매화되어 님의 침변에서 시들어 외로운 그림자로 님의 옷에 비쳐 보나 님이 나를 반길 리는 만무하고, 죽림칠현이 기거했던 곳에 있어도 마음만은 조정에 달려가니 유배지에서 꿈을 깨어나 장안을 대낮에 보고 싶으나 복잡하게 꼬인 현실이 누구의 탓인가 자신은 진정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天道가 막막하여 알길이 없어 천지만물 근본을 주공에 묻고자 하나 하늘이 너무 높아 갈 수 없으니 구름 위를 나르는 새만은 알지 않겠냐고 탄식하였다.

다음은 결사로 121행에서 125행(어와 이 내 가슴 ~ 萬世相感 ㅎ리라)까지다.

어와 이 내 가슴	
山(산)이 되고 돌이 되어	어디 어디 사하시며
비 되고 물이 되어	어디 어디 우러 넌고
아모나 이 내 뜻	알 니 곳 이시면
百歲交遊(백세교유)	萬世相感(만세상감) ㅎ리라

<잡동산이(雜同散異) 44책에서>

이렇게 서정적자아가 자신의 소회를 충분히 진술하여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성충을 얻지 못했기에 ‘흥중에 싸힌 말슴 쓸커시 스로리라’고 한 서사의 내용이 충족되지 못했다. 그래서 더 이상 님에 대한 연군의 정을 기대할 수 없어 자신의 처지는 원분과 통한의 노래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결사에 이르러서는 산에 돌이되어 쌓이고 빗물이 되어 어딘가로 울며 울며 흘러가다가 終行에 가서는 어느 누구나 자신의 만분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평생토록 서로 교유하며 상감해 보고 싶어하는 서정적자아의 마지막 소망을 읊었다. 그러나 그 소망마저도 성취할 수 없는 구체불능의 입장에 서고 보니, 이 작품은 제목에서부터 끝까지 만분으로 점철된 노래가 될 수밖에 없다.

이상에서 논의한 <만분가>의 구조적 특성을 요약하면, 작품의 구조를 크게 序詞, 本詞, 結詞 등으로 나누고, 본사를 7단락으로 세분하여 創作動機, 衷情謳歌, 囹圄悲歎, 仰天歎息, 怨憤吐露, 含憤蓄怨, 哀訴懷疑, 聖寵回復, 萬憤과 諦念 등으로 고찰한 바, 작가 자신이 억만장 늑에 빠져 허우적 거리며 절망하고 체념하는 원분의 정서를 읊었다.

또 白玉京, 玉皇上帝 등 道教用語와 ‘楚客의 後身인가’, ‘賈太傅의 녀시런가’, ‘金華省白玉堂의’, ‘陳蔡之厄을’, ‘縲紲非罪를’, ‘崑崙山 第一峯의’ 등 中國故事를 많이 쓴 것은 萬憤을 直訴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우회적인 은유법을 사용하였고, 문장 표현의 완곡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혹자는 이런 형상화 기법에 대하여, 儒家의 선비로 도교적인 심상을 활용하여 수다스러운 사설을 아로 새기기만 했고, 내심을 토로하는데 치우치다 보니 현실인식이 둔화되었다¹⁹⁾고 폄하하고 있으나, 이는 <만분가>의 깊은 내용을 새기지 못한 성급한 평가라고 하겠다. 이런 도교용어와 중국고사의 빈번한 사용은 작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문장력이라 하겠고, 또한 天上과 中國은 작가의 현실과는 단절된 공간으로 이런 공간적 대립은 님과의 재회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슴에 쌓인 怨情과 萬憤을 마음껏 토로할 수 있는 환경적 여유를 마련하였다고 보아 작품 구성의 특이성이 엿보인다.

IV. 작품에 서린 作者의 意圖

19)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권, 지식산업사, 1983, 300쪽

<만분가>에 나타난 작가의 의식세계를 고찰함에 있어 유배문학을 바라보는 일반적 의식은 작품의 내용을 유배지에서 겪은 온갖 고초와 고독감에서도 向主一片丹心으로 보고 한결같이 忠臣戀君之詞라 하였다. 이상보²⁰⁾도 유배가사는 작자의 敗北意識과 挫折感이 전편에 넘쳐 있기 때문에 泣訴, 哀怨, 傷心 등이 그 主詞를 이루지만 諦念이나 絶望을 극복하고 다시 임금께 나아가려는 意志力이 여운처럼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였다. 이런 의식에 따라서 <만분가>의 주제의식도 戀君歌로 간주 되었으며, 뿐만아니라 <만분가>가 이런 유형을 만들고 주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작가 의식을 고찰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김주곤²¹⁾도 조선의 유교사회에서는 五倫中에 특히 忠을 가장 중시하였으니 이를 주제로 하여 이루어진 작품이 憂時戀君의인 詩歌類인데 <만분가>도 여기에 속하며, 유배지에서 憂時憂國하고 戀君丹忠하는 衷情을 구가하여 疏遠해진 聖寵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고, 특히 ‘五色실니움 절너 님의 옷슬 못 햏야도 바다 ㄴ튼 님의 恩을 秋毫나 감프리라’라는 구절은 君王을 사모하고 국사를 염려하며 충성을 서약한 것을 주제로 한 것이라고 하였다. 때문에 이는 후일 유배가사의 좋은 표본으로 思美人系 작품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또 이후 <유배가사에 나타난 충절의식 양상>의 논의에서도 <만분가>는 戀君의 忠情으로 일관한 ‘向主一丹心’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생사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모든 것을 체념하려는 숙명론적 인생관에 뿌리 박고 있음을 알게 하는 戀君의 작품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과 약간 다른 주장을 낸 최상은²²⁾은 <만분가>와 <사미인곡>은 유배지에서 왕을 그리워하는 정서로 님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마음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각기 특이한 구조를 가진 유배가사로 유배지에서 왕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그리되 님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마음으로 형상화했다. 그러나 전자는 몇 번의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 지면서 결사에 가셔도 역시 아무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면 오래도록 교유하고 감응하겠다고 하여 님을 체념하여 자포자기로 끝맺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님 조츠려 햏노라’고 님에의 무조건적 사랑을 구가함으로 兩歌는 대조적인 차이를 보임으로 비슷한 이미지를 지니면서도 사뭇 다른 의미를 창출하는 작품이라고 했다.

또한 박일용²³⁾은, <만분가>는 한편으로는 님을 잃은 여성을 서정적자아로 설정하여 연군적 정서의 형상을 취하고, 다른 면에서는 <만분가>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이 유배를 당하게 된 현실에 대한 발분의 정을 아울러 표출하는 유배가사라는 데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유배가사가 지닌 양면의 전형적인 형태중 어느 한쪽 경향을 취하지 않고 그 둘을 아우르는 특징을 보이는 것은 이 작품이 유배가사의 효시 작품이기도 하지만 작가가 당대의 정치현실에 대해 가진 세계관적 태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종식²⁴⁾은 <만분가>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현실에 대한 含憤的 정서가 짙게 깔려 있고 아울러 애소와 체념, 연군적 정서등이 전체적인 이미지를 이끌고 있다. 그렇기 때문

20) 이상보, 『한국가사문학의 연구』, 17쪽.

21) 김주곤, 전계논문, 330쪽

-----, 「유배가사에 나타난 충절의식 양상」, 『영남어문학』16집, 영남어문학회, 1989, 356~358쪽.

22) 최상은, 「<만분가>와 <사미인곡>의 작품구조와 작가의식」, 『영남어문학』15집, 영남어문학회, 1988, 290~292쪽.

23) 박일용, 전계서, 609쪽

24) 최종식, 전계논문, 40~41쪽

에 현실에 순응하는 의식과 함께 현실의 질곡을 비판하는 의식이 표출되어 있어 다른 유배가사와는 달리 현실 순응의식과 현실 비판의식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더구나 현실 질곡에 대한 발분적 정서를 비판적 인식으로 획득하기 보다 서정적 자아의 체념적 정서에 동화하고 현실도피적 경향으로 형상화 되었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이상보는 <만분가>의 주제의식을 임금께 나아가려는 의지력이 담긴 戀君歌로 보았고, 김주곤도 충정을 구가하여 소원해진 聖寵을 회복하고자 한 戀君的 작품으로, 최상은 왕을 그리워한 정서를 노래하되 <사미인곡>와 다른 의미를 창출하였고, 박일용은 戀君的 정서와 發憤的 정서의 교합이고, 그리고 최종식은 발분적 정서를 비판적 인식으로 획득하지 못하고 체념적, 現實逃避的 경향으로 보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물론 위의 주장에는 그럴만한 근거들을 제시하여 논의한 바, 가사작품의 분석적 연구를 하고자 하는 후학들에 좋은 본보기를 보여 주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체로 작품 자체보다는 流配라는 상황과 士大夫라는 입장에서 忠臣戀主之詞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한 외적 요인이나 작가적 위상도 중요하지만, 작품 연구는 작품 자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그 결과의 종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전자와 같이 문학 외적 사실에 근거한 연구에 그치고 말면, 각 작품의 特殊性은 감추어지고 작품들의 一般性만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개개 작품은 모두 작품마다 특수한 구조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일반성 속에 숨겨진 그 작품만이 지닌 특수성을 찾는 작업이야말로 앞으로 가사문학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선결과제라 본다. 이런 관점에서 <만분가>를 분석해 본 결과, 유배라는 공통된 상황과, 사대부 작품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충신연주지사라는 일반성 속에 <만분가>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성을 엿볼 수 있었다. 아울러 독특한 구조와 의식 속에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작품의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였다. 피상적으로 보아서는 비슷한 주제의식인 듯하지만 작가가 의도한 주제의식을 분명히 함으로 독자에게 전달되는 작품의 의미는 그만큼 큰 진폭으로 다가 오리라 생각된다.

<만분가>를 9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본 바, 서사는 이 작품의 도입으로 ‘님을 만나 가슴속에 맺힌 원분을 실컷 사죄리라’는 創作動機를 노래하였다. 본사는 流配者의 고뇌와 작가의 衷情을 구가하였고, 가족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으로 囹圄의 신세를 비탄하였으며, 이어서 同類들과 이별하는 슬픔으로 仰天歎息하고, 하늘을 우러르며 怨憤을 吐露하였으며, 또 하늘 같은 님을 원망하는 含憤畜怨을 읊었고, 서정적자아의 체념적 정서가 서린 哀訴와 懷疑를 그렸으며, 님에 대한 회의와 원망중에도 聖寵回復에 의지를 보였다. 마지막 結詞에서는 萬憤마저도 체념하고, 山石되고 빗물되어 울면서 흘러가다가 자신의 衷情을 알아 주는 이 있으면 어느 누구와도 함께 오래도록 사귀며 相感하겠다고 하여, 끝내는 자기를 각별히 총해하여 줌으로 충성을 다바쳤던 선왕(성종)마저도 버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충성으로 받들었던 만분의 元祖인 님(선왕)마저 버리고 떠나는 서정적자아는 우리 시가의 대표적 悲歌를 노래했다고 하겠다. <만분가>는 다른 유배가사와 달리 현존 임금(연산군)이 아닌 先王에 대한 것으로, 이미 선왕은 자신의 원한을 호소할 대상도 아닐뿐 아니라 오히려 오늘의 비탄을 초래한 현실에 좌절하며, 억만장 소에 빠진 자신을 구해줄 처지라면 아무라도 만났으면 하는 심정인데, 지금은 그렇지도 못해 원한만 쌓일뿐이라고 읊고 있다.

또한 <만분가>라는 제목은 일반인도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사대부로서는 특수한 상황에서 제시되는 비장한 심정을 노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자가 당한 원한이 얼마나 크기에 자신의 정서와 처지를 이런 격한 말로 대변할 수 있는 것인가 짐작이 간다. 제목은 그 내용

을 요약 대변한다고 볼 때 <만분가>는 오만가지 분한 심정을 담고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보통 百, 千, 萬 등은 과장적이긴 하지만 어떤 것을 강조하여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 여기에는 百척간, 千층랑, 삼千장, 구萬리, 억萬장, 억萬번, 萬장송, 萬겹, 일萬이천봉, 萬세상감, 萬리봉정, 관산 萬리 등 크고 많음을 강조한 말을 빈번히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작자의 원한이 얼마나 큰 것이가를 알 수 있다. 이를 밖으로 토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의 노래라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이 작품의 작가의식은 다양하게 제시되는 다음의 素材들에서도 볼 수 있다. 소재명과 빈도수를 소개하면, 梅(3), 蘭(2), 菊(1), 竹(2), 夢(5), 울다(5), 눈물(4), 死(5), 離別(2) 등이 있고, 자신을 비유하거나 처지를 나타낸 대상물은 五月飛霜, 杜鵑, 구름, 白鷗, 月, 외기러기, 우는새(3), 山, 石, 雨, 水, 萬丈松, 鶴 등이 있다. 그리고 怨憤之情을 나타낸 어구를 소개하면, 13행 傷心도 7이 없고, 14행 한숨은 무스일고, 37행 팔도 恨을 솟쳐보니, 38행 이별도 괴로워라, 52행 魚雁이 무정하니, 66행 冤氣로 니되로다, 68행 서룬 일도 하고 만다, 71행 원분만 싸헛시니, 74행 하늘을 원망홀가, 78행 생각거든 슬므어라, 100행 두어 소리 슬피우리, 102행 恨이 쏠희되고, 123행 어디 어디 우리 넬고 등 13구에 이르고 있다.

이상에서 <만분가>에 드러난 원분의 양상을 밝히기에 제목에 함축된 작자의 의도를 고찰하였고, 형상화한 素材와 比喻物, 그리고 怨憤之情의 구절을 요약 소개하면, 소재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것이 9회, 죽음과 이별이 7회, 꿈속이 5회 등으로 나타나 화자의悲痛한 심정을 헤아릴 수 있으며, 서정적 자아를 비유하여 두견, 백구, 학, 외기러기, 우는새 등 자유롭게 날 수 있는 鳥類와 산, 물, 돌, 비, 달, 구름, 서리, 소나무 등 自然物을 통하여 나타난 작자의 痛恨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冤氣로 니되로다’, ‘怨憤만 싸헛시니’, ‘하늘을 怨望홀가’ 등 13구에 표현된 작자의 情緒는 發憤之情이라 할 수 있으며, <만분가>의 작가의식은 戀君 쪽이 아닌 萬憤쪽에서 고찰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만분가>를 일반 유배가사와 동일시하여 忠臣戀君歌라는 입장에서보다는 작품 자체의 특이성이 고려된 怨憤歌라는 시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만분가>는 일반 戀君歌로 보기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만분가>라는 제목에서부터 그런 조짐을 받는다. 이런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작품의 창작 배경, 작품의 구조, 작가의식 등을 심층 고찰하였다.

첫째, 창작 배경은 조위가 인생의 결실기에 일어난 황당한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유배생활을 하는데서 이루어진다. 조위는 김종직 문하에서 文名을 얻었으며, 뛰어난 文材로 인하여 성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으며,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점필재문집』 간행시 <조의제문>을 책머리에 둔 것이 화근이 되어 賀正使로 연경에 간 매계를 압록강을 건너 오거든 참수하라는 왕명이 내려으나 李克均이 先王의 寵臣이라고 간청하여 죽음을 면하고 유배길에 오르게 된다. 의주를 거쳐 순천에서 답답한 5년여의 세월을 보내면서 철천의 원한을 삭이며, 끝없는 인생의 벼랑을 느끼며 중병으로 최후를 맞았다. 그리고 1년후 갑자사화때는 윤씨폐비교서를 작성한 죄로 부관참시를 당했다. 조위는 연약한 사람과의 한 사람으로 막강한 훈

구과의 권력 앞에서 느낀 막막한 좌절감이 분노와 체념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런 원분의 심정은 <만분가>라는 유배문학을 생산하게 되었다.

둘째, <만분가>의 구조적 특성을 요약하면, 총 125행 247구의 장편 가사다. 3행은 單句로 형성된 파격을 이루었다. 작품구조를 크게 서사, 본사, 결사 등으로 나누고, 본사를 7단락으로 세분하여 전체를 9단락으로 분류하였다. 1)창작동기, 2)충정구가, 3)영어비탄, 4) 양천탄식, 5)원분토로, 6) 함분축원, 7)애소와회의, 8)성충회복, 9)만분과체념 등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道家의 用語와 26회나 中國의 故事를 많이 인용하여 만분을 직소할 우회적이고 완곡한 상징적 표현기법을 동원하였다.

셋째, 작가의식은 다양하게 제시되는데 소재, 비유물, 원분을 직소한 구절 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재들은 매난국죽, 꿈, 눈물, 죽음, 이별 등이고, 비유물들은 두견, 백구, 학, 외기러기, 우는새, 등 鳥類와 산, 물, 돌, 달, 비, 구름, 서리, 소나무 등 自然物을 통하여 작가의 통한을 토로하였다. 그리고 13구에 달하는 많은 곳에서 발분의 정을 노래하고 있어, <만분가>의 작가 의식은 충신연군지사라는 입장에서 작품 자체의 특이성을 고려한 만분가라는 시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만분가>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고찰한 바, 기존의 연구 업적과는 크게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다. 특히 작품 내용을 고찰함에 있어 일반적 인식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작품의 독자적 특이성을 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만분가>의 경우도 작품 분석과 작가의식의 규명에서 이런 잘못을 발견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 분야의 연구가 더 심도 있게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 권성준, 「유배가사의 미학적 접근」, 고려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김정범, 「송강가사와 屈原의 <離騷> · <思美人>의 비교 연구」, 인하대석사 학위논문.
- 김정주, 「조선조 유배가사의 연구」, 한남대 박사학위논문, 1994.
- 김주곤, 「조위의 만분가 연구」, 『영남어문학』 14집, 영남어문학회, 1987.
- 류연석, 『한국가사문학사』, 국학자료원, 1994.
- , 「만분가와 사미인곡의 비교연구」, 『한국언어문학』 42집, 한국언어문학회, 1999.
- , 「梅溪 曹偉의 <萬憤歌> 研究」, 『古詩歌研究』 10집, 한국고시가사문학회, 2002.
- , 「만분가의 내용적 고찰」, 『고시가연구』 1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 문찬식, 「유배가사연구」, 『논문집』 1권, 광주경산전문대, 1981.
- 박일용, 「만분가의 형상화 형태 - 연군적 정서와 발분적 정서의 교합양상-」, 『한국고전시가작론』, 집문당, 1992.
- 순천대학 남도문화연구소, 『昇平誌』, 정문사, 1988.
- 이가원, 「만분가 연구」, 『동방학지』 6집, 연세대, 1963.
- 이상무, 「유배가사연구 - 내용과 변화를 중심으로-」,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1990.
- 이상보, 「한국가사문학의 연구」, 형설출판사, 1974.
- 이상보편, 『한국가사선집』, 집문당, 1979.
- 임종걸, 「매계 조위의 생애와 詩世界」, 안동대 석사학위논문, 1993.
- 전일환, 「시조 · 가사에 나타난 도가사상」, 『한국언어문학』 21집, 한국언어문학회, 1982.
- 정석봉, 「유배가사고 - 만분가, 낙지가, 북관곡, 만언사, 북천가를 중심으로-」 『어문교육』 1권, 어문교육연구회, 1978.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83.
- 조 위, 『梅溪集』, 계명문화사, 1988.
- 최상은, 「<만분가>와 <사미인곡>의 작품구조와 작가의식」, 『영남어문학』 15집, 영남어문학회, 1988.
- 최종식, 「유배가사연구 - 만분가, 별사민고, 속사미인곡, 만언사 등 -」, 우석대, 석사학위논문, 1994.

<Abstract>

A study on the content of "Manbunga"

Ryu, Yeon-seok

The automatic concept that "Manbunga" must be "Yeon-gun-ga-sa" because of the author's origin as a Korean noble class so called "Yangban" is not always correct, especially in this case "Manbunga".

The intensive efforts to research on the author's biographical environment had made to understand the author's exact intention to write "Manbunga".

To get a grip on the content of "Manbunga", the work on a understanding the sentenc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 of "Manbunga" had been required'.

The most important thing has found from this research is that the author's emotion to the king during the work on "Manbunga" was not the same as other authors who wrote the "Yeon-gun-ga-sa" expressing their loyalty with love to the king. The "Manbunga" had written by the author who had a loyalty with anger to the king.

The new approach to understand "Manbunga" has been possible by this additional consideration and efforts above.

Key words : Manbunga, Yeon-gun-ga-sa, biographical enviroment, structure, author's emotion